



오늘의 날씨와 생활

10월 1일 목요일 음 8월 21일 (13월)

기상정보



맑음

제주도는 맑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 낮 최고기온은 24-25℃로 예상된다. 구름많다 아침부터 차차 맑아질 예정이다. 유의해야겠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20%	제 주	10%
20%	성 산	10%
20%	고 산	20%
2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 맑음 17/23℃
모레 ☀ 구름많음 17/25℃

월드뉴스

美 23년만에 이라크전 종식... 에르빌 기지 폐쇄

방공역량 대사관·영사관 집중

미군이 30일(현지시간) 이라크 쿠르디스탄 자치구역 내 에르빌 기지를 폐쇄하고 이라크에서 철수한다. 이라크전 개전 이후 23년 반, 미군 제주둔 이후 12년여 만이다.

29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은 철수 시한을 맞추기 위해 장비와 인력을 항공편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미군은 기지 주변 패트리엇 방공포대도 이미 철수했으며, 일부 해병대원과 미군 장비 정비 계약업체 인력은 남을 예정이다. 미 국방부는 공식 군사작전은 끝내지만 정보·감시·정찰 등 역내 역량은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철수는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이라크 정부와 합의한 일정에 따른 것이다. WSJ에 미국이 23년



에르빌 국제공항 연합뉴스

간 1조7000억 달러가 넘는 비용을 쓴 이라크 전쟁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이란 지원 민병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불안정성이 심화할 우려도 나온다. 이란 전쟁이 시작된 2월 말부터 두 달간 이라크 내 미국 외교·군사시설은 600차례 넘게 공격받았다. 이라크 정부가 추진한 민병대 무장해제도 지연되고 있어 미군 철수 이후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목요일론



임택규

한국도시계획학회 제주지회장·공학박사

‘꽃자왈’은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불규칙한 암괴지대에 숲과 덩굴 등 다양한 식생이 자라는 곳이다. 제주말로 ‘곶(곶)’과 자왈이 결합한 말로, ‘곶(곶)’은 돌들이 열기설기 널브러져 있고, 숲이나 수풀이 무성한 곳을, ‘자왈’은 나무와 덩굴이 뒤엉킨 덩굴을 뜻한다. 쉽게 말해 땅 위와 땅속에 돌이 널브러져 그 위로 숲이 우거진 곳이다. 제주 면적의 약 5%를 차지하며 생물 다양성과 지하수 함양 기능으로 ‘제주의 허파’라 불린다. 이러한 생태적 가치와 개발에 따른 훼손

꽃자왈 보전 가이드라인 마련

우려로 2007년부터 시작된 꽃자왈 공유화 운동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꽃자왈 보전을 위한 제도도 마련돼 왔다. 2009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는 꽃자왈을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 지정기준에 포함했고, 2014년 ‘꽃자왈 보전 및 관리조례’가 제정됐다. 2015년 전부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보전 규정이 마련됐으며, 2019년에는 보호지역 지정 근거도 신설됐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기반에도 불구하고 전체 꽃자왈에 적용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미흡하다.

제주도는 2015~2022년 ‘꽃자왈 실태조사와 보전관리 방안 수립 용역’을 진행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꽃자왈 보호지역’이 지정·고시와 세부 관리기준 정비에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가 추진

하는 ‘절·상대·관리보전지역 정기조사’에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토지임에도 꽃자왈 실태조사 자료에서 꽃자왈로 분류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2등급지로 지정하는 불합리한 행정행위가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꽃자왈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는 보호지역 지정·고시 후 관리방향 및 규제사항 등을 조속히 구체화함으로써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

꽃자왈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그러나 보전의 당위성만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행정의 일관성도 고려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법률상 정의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현장 판정기준을 명시하고, 조사자나 담당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2022년 조사 결과를 기초로 추가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질·식생 등 보전가치와 과거 토지 이용 이력, 훼손 정도, 복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보전가치가 높은 곳은 엄격히 보호되되, 타 법령에 따른 개발로 이미 꽃자왈 기능을 상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지역은 충분한 검증을 거쳐 경계 조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보호지역 내 토지의 우선 매입을 확대하고 토지소유자의 매수청구권 도입도 검토해 보전과 재산권 보호의 조화를 모색해야 한다.

꽃자왈 보전은 선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어디까지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보전·관리할 것인지 명확히 할 때 꽃자왈은 제주의 소중한 지역자산으로서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

열린마당

2028년 G20 정상회의 세계평화의 섬 제주에서

자식보다 친절한 타인 ‘실버 사냥꾼’



김정아

제주특별자치도청 평화외교과

2028년 대한민국이 G20 정상회의 의장국을 맡는다. 기후위기와 에너지 공급 불안, 국가 간 갈등과 기술 격차가 심화되는 시대다. 세계 주요국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개최지는 단순한 회의의 공간을 넘어 국제사회에 목격한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적 가치와 연대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왜 제주인가. 제주에는 이에 답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품어낸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평화와 협력이라는 국제사회의 보편

적 가치를 구현하는 다자외교의 무대다. 제21회 제주포럼에서도 국제기구와 중앙부처가 참여해 글로벌 현안과 다자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제주가 국가 외교와 국제협력의 연결하는 플랫폼임을 보여줬다.

또한 제주를 G20의 주요 의제인 ‘기후·에너지 대응’을 현장에서 실증해 온 도시다. 기후위기 대응과 청정에너지 전환은 역대 G20 정상회의에서 지속적으로 다뤄진 핵심 의제다. 제주를 그동안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청정에너지 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해법과 미래상을 보여주고 국제사회에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할 수 있다.

2004년 한·일 정상회담을 비롯해 수많은 국제회의를 개최해 온 제주의 국제행사 역량도 이미 검증됐다. 제주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린다면 평화와 기후·에너지라는 시대적 의제를 함께 담아내며 새로운 글로벌 협력의 질서를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김성진

국민권익위원회 시민상담

“명절 때나 겨우 얼굴을 비치는 자식보다 훨씬 더 자식 같았습니다.”

최근 경제적 착취를 당한 노인들이 경찰서나 복지상담실에서 털어놓는 말이다. 매일 찾아와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주던 ‘친절한 타인’에게 마음의 문을 연 순간, 평생 일궈온 집과 노후연금은 이미 남의 손으로 넘어간 뒤였다.

노인의 인지기력 저하를 악용해 재산을 약탈하는 이른바 ‘실버 사냥꾼(Silver Hunter)’이 초고령사회의 그늘 속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들은 수개월에 걸친 ‘감정공작’으로 삼리계 종속관계를 형성한

뒤 부동산 명목의 예금을 가로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범죄가 개인의 주의 부족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핵가족화가 빚어낸 구조적 비극이라는 점이다. 경도인지장애나 초기 치매 고령자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노려 인감도장과 신분증, 위임장을 확보하고, 정당한 계약 형식을 취해 뒤늦게 사실을 알아도 처벌이나 재산 회수가 어렵다.

이를 막으려면 법과 금융, 지역사회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방어선을 구축해야 한다. 노인복지법상 ‘경제적 학대’ 개념을 구체화하고 제3자의 의도적 재산 갈취를 엄벌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복지관과 경로당,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노인자산 보호 상담과 지역사회 감시망도 강화해야 한다.

초고령사회에서 고령자의 외로움을 보살피고 존엄한 삶을 지켜내는 일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공적 책무다.



모델비례 체험 맞춤 정장

제일사 양복점

이전기념행사

· 33년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 철저한 사후 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제주시 중앙로 170 / TEL. 722-0914, FAX. 722-9098 | 영업시간: AM 9시 ~ PM 9시 일요일 쉽니다 | <http://www.cheilsa.co.kr>

맞춤바지 무조건

- 3장 15만원
- 2장 12만원
- 1장 7만원

원단 다양 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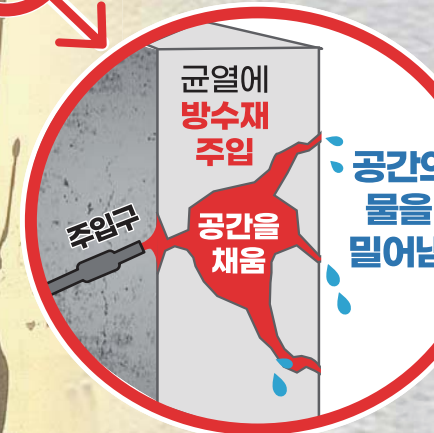
시청 ↑
고용복지센터 (구. 상록회관) ↑
신한은행 ↑
← 삼성혈 칼호텔 ↑
전농로 →
1중앙로 ↓

제일사

NAVER 제일사 검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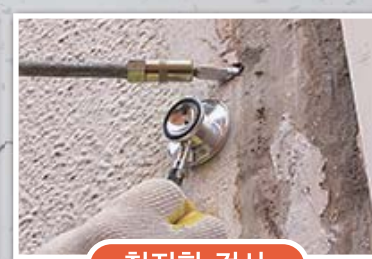
빈틈없이 파~악 채웁니다



균열에 방수재 주입
공간의 물을 밀어냄
공간의 물을 밀어냄



완벽한 방수



철저한 검사



꼼꼼한 시공

에코방수란? 벽, 창틀, 옥상등 균열틈새에 아크릴수지와 마이크로시멘트를 속속들이 주입하여 안에 있는 물을 밀어내고 틈새와 공간을 채워 영구적인 방수와 단열효과까지 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수기법

에코방수 010-9086-8965